



그룹 위너가 5일 발매한 네 번째 미니음반 '홀리데이'를 통해 "완전체의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미니앨범 4집 발매 오늘이 2막 시작점”

“폼 잡는 노래보다 힐링 노래할 것”

“멤버들도 모두 30대에 접어들었으니 제2막을 연다고 생각해요.”

강승윤, 김진우, 송민호, 이승훈, 솔로 가수인 솔로 파워가 활발히 활동하며 멤버 개인이 솔로 파워가 상당하다. 이들이 그룹 위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시너지 역시 그 이상이다. 한동안 그룹이 아닌 솔로로 팬들과 만나왔던 것은 멤버 가운데 김진우와 이승훈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이다.

5일 네 번째 미니음반 '홀리데이'를 발표하며 2년 3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이들은 “위너의 2막을 여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덧 9년 차다. 우리가 생각한 제 1막은 목표한 하나의 길로 열심히 걸어다가 (솔로)여러 갈림길로 나뉘는 거였다”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을 조금 더 넓혀보면서 네 갈래로 갈라진 길들이 또다시 하나로 뭉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2막의 시작은 강승윤과 송민호의 군 입대다. 이들은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어 그룹 활동의 공백이 일정 기간 예정되어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팬들도 (공백에 대해)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승훈 형과 진우 형이 입대했을 때도 남은 멤버가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채워줄 거예요.”

2013년 데뷔한 위너는 지난해에는 소속사와 계약도 맺었다. 앞뒤 재지 않고, 계약의 기준은 “위너 4명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연습생 기간까지 하면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손발을 맞춰온 스태프와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했죠. 아직도 멤버들의 얼굴만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요. 위너라는 그룹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전우’라고 할 수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함께 가는 전우요. 그리고 ‘가족’이죠.”

이들이 10년 가까이 함께 한 시간은 앨범에 고스란히 담았다. “9년차가 됐다고 폼 잡고 무겁게 있는 노래는 하기 싫었”단다.

“예전 같았으면 멋있는 노래를 고집했을 거예요. 달라졌죠. 하하!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런 노래를 부르려는 법은 없잖아요. 가볍고 밝은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훨씬 낫고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노래들만 골라 담았어요.”

이정재 기자 annjoy@donga.com

이정재 “정우성 캐스팅 가장 힘들어” 정우성 “고생하는 이정재 아름다워”

이정재

연출 데뷔작...칸 초청은 꿈같은 시나리오 정우성에게 4번 퇴짜

정우성

칸 동행은 정재와 신혼여행 하하 최선 다하는 감독님 열정에 감동

“‘헌트’로 꽃피운 23년 지기 ‘간부’ ‘월드스타’ 이정재의 첫 연출 데뷔작 ‘헌트’는 23년 지기의 우정과 영화적 영감으로 완성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이 주연한 영화는 1980년대 한반도를 배경으로 서로를 내부 첩자로 의심하는 두 안기부 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 액션물이다. 1999년 ‘태양은 없다’에서 젊은 패기와 들끓는 우정을 그렸던 두 사람은 이번 영화에서 조직 내 침투한 스파이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팽팽하게 대립한다. 앞서 5월 칸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돼 호평 받았다.

다음 달 10일 개봉을 앞두고 5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정재는 “‘헌트’로 많은 영화제 중 가장 의미 있는 칸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초청받아 기뻐했다”며 돌아왔다. 옆에 있던 정우성은 “우리 둘이 칸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정재, 연출·각본·주연까지 1인 3역

‘헌트’의 시나리오 판권을 구입한 후 “제작에만 참여”하려고 했던 이정재는 “쉽지 않은 긴 제작 과정을 거치며 오래 고민한 끝에” 각본과 연출까지 맡았다. “이런 큰 영화를 내가 만들어도 되나” 싶어 고민했다. 오랫동안 영화 일을 해왔지만 각본을 쓰거나 연출을 하는 건 연기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저했고, 결국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배우들의 ‘캐스팅’을 꼽았다. “감독으로서 동료 배우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왼쪽부터)이 5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영화 ‘헌트’ 제작보고회 무대에 나란히 올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hh1147@donga.com

들에게 시나리오를 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긴장되는 일”이었다는 그는 “특히 ‘절친’ 정우성의 캐스팅이 가장 힘들다”고 고백했다.

“‘태양은 없다’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았으나 ‘투톱’으로 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않았다. ‘헌트’의 초안부터 우성 씨와 공유했는데 사실 많이 미흡했다. 4번이나 거절당했다. 둘이 함께하는 작품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데 준비가 덜 된 작품으로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정우성 “끼지더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

그 역시 이정재와 함께 한 작품을 선보인다는 게 “더 두렵고 조심스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위에서도 작품보다 자신들의 사적인 관계에만 관심이 집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정재와도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했다”는 그는 “이 작품을 내놓기 위해 이 양반(이정재)이 부단

히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마침내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끼지더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이 들더라”고 말했다.

‘감독’ 이정재의 노력과 열정을 온몸으로 느꼈던 현장도 떠올렸다. “내 친구가 현장에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도였다.

“정재 씨는 촬영을 끝내고 피곤함에 절은 상태로 속수에 들어가도 쉴 수 없었다. 다음 날 촬영을 준비해야 했고 촬영장에도 가장 먼저 나가 있어야 했다.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이더라.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짝하면서 아름다웠다.”

이정재는 “개봉은 제(영화)가 먼저 하게 됐지만 우성 씨가 ‘보호자’(하반기 개봉 예정)라는 연출을 앞서서 했다.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 힘들어서 인사를 행거였었는데 ‘헌트’ 촬영 중 우성 씨가 산삼을 챙겨주더라”며 웃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나는 솔로’가 연애예능서 우뚝 선 이유

(ENA·SBS플러스)

미혼 남녀 합숙형 짝짓기 포맷 직업·배경 등 현실적 요소 어필 출연자 폭언 논란 등 해결 과제

연애 예능 포맷이 쏟아지는 방송가에서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가 지극히 현실적인 매력에 통해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비연예인 남녀 출연자 간의 진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결혼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덕분이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방송한 프로그램은 결혼이 목적인 12명의 남녀 출연자들이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가수제로 운영해 최근 9번째 출연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도 5쌍이나 된다.

가수 데프콘, 배우 이이경, 모델 송해나와 연출자 남규홍 PD는 “지난 1년간 그래왔듯 극사실주의 콘텐트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결혼에 초점을 맞춘 점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으로 통한다. 데프콘은 5일 서울 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기



가수 데프콘·모델 송해나·배우 이이경이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ENA·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무대에 올라 코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ENA·SBS플러스

자간담회에서 “경쟁 연애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비주얼(외모), 풋풋함, 세련미를 쏙 빼다”면서 “1년 내 5쌍 커플이 결혼에 골인한 결과만 봐도 우리만의 강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출연자들은 영숙·영철 등 가명을 사용되며 직업이나 배경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공개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다. 출연자들의 연령대도 20대 중후반이 위주인 다른 연애 예능과 달리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30~40대가 대부분이다. 송해나는 “출연자들이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려진다”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외모, 재력 등 각종 조건을 따지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이나 배경이 아닌, 성품으로 많은 러브라인이 바뀌는 것도 흥미롭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잇단 출연자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4기 출연자 중 한 명인 ‘영철’이 다른 출연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행정지도인 권고령을 의결했다. 남규홍 PD는 “리얼리티 포맷 특성상(출연자 논란)숙명기도 같다”면서도 “제작진이 3차 사전 미팅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출연자 검증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경은 “제작진이 단순한 자극만 좇는다면 프로그램이 1년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출연자들과 제작진 모두 ‘장수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신중한 재미를 주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유진 성유리 윤은혜

‘1세대 걸그룹’ 언니들 예능 무대 꼭 잡았네

유진·성유리·윤은혜 등 색다른 도전 제작진 “방송감각·대중성 겸비” 선호

S.E.S. 유진, 핑클 성유리, 베이비복스 윤은혜 등 ‘1세대 걸그룹’ 출신 스타들이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색다른 소재들을 내세운 예능프로그램에 도전하며 기존의 이미지를 깨는 동시에 팬들에게도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유진은 최근 방송을 시작한 SBS ‘오, 마이 웨딩!’에 이어 12일부터 채널A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펜트하우스)’를 진행한다. ‘오, 마이 웨딩!’에서는 각종 이유로 결혼식을 열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직접 결혼식 준비를 하는 웨딩플래너로 활약 중이다. 4억 원의 상금을 두고 두뇌 싸움을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펜트하우스’에서는 출연자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시청자에게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동인TV ‘뷰티 앤 뷰티’, SBS플러스 ‘여자플러스’ 등 뷰티 프로그램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도전하지 않았던 소재에 관심을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유리도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는 연애 예능 포맷에 도전한다. 11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를 통해서다. 진행자로서 이별한 커플들이 재결합을 고민하는 과정을 전한다.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것은 2019년 JTBC ‘캠핑클럽’ 이후 3년 만이다. 1월 딸을 출산한 이후 방송가에 복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윤은혜는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다시 가수로 나섰다. 제작진이 4월부터 준비한 여성 보컬그룹 WSG워너비의 멤버로 발탁돼 재데뷔 준비에 한창이다. 그동안 다양한 연기 및 예능 활동을 펼쳤지만,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것은 2006년 베이비복스 활동 이후 처음이다.

무대에 복발됐던 만큼 다른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잠시 거절한 채 WSG워너비 프로젝트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프로그램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도 진행하며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다. 덕분에 화제성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이름도 올려주었다. 5일 소속사 제이아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서 음원 녹음 및 활동 준비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내한 앞둔 마룬5, 육일기 삭제하라” 항의 메일



‘마룬5’ 공식 홈페이지

미국 인기 팝 밴드 마룬5가 11월 내한 공연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에 육일기 문양을 내걸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당 문양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메일에 ‘일본의 육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일기의 역사적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 바로 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룬5는 2일 홈페이지에 11월 3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무대 등 월드투어 공연 일정을 공개하며 배경 사진에 육일기 문양을 넣어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3년 만에 대면 개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5일 BICF 측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부산 각지에서 부산 개최한다”고 알리면서 고이외수 작가가 생전 만들어 준 BICF 캘리그래피와 대한민국의 히스토리를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BICF는 2013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최초 코미디 페스티벌과 협회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